

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64.63 (-16.37)	760.37 (-8.8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81 (-0.008)	1339.40 (+1.00)

“美 전기차 시장 성장 확산” K배터리, 생산·투자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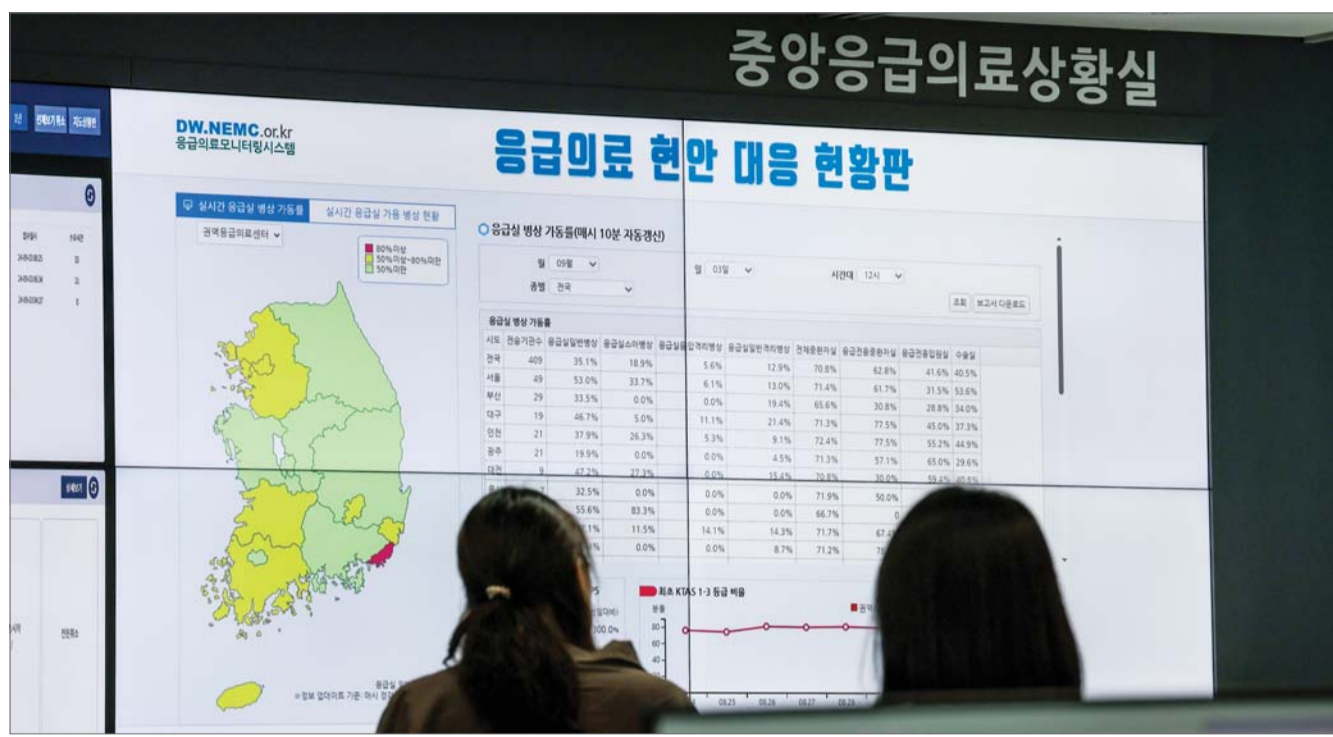
배터리업계, 전기차업황 부진에도 북미시장 연평균 30% 성장 예상 생산시설 확충 등 전략적 투자 ↑ 삼성SDI-GM과 JV 설립 본계약 전기차 배터리 생산 35억弗 투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기차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체가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전용 공장을 건설하는 데 집중 중이다. 무엇보다 미국 중심 합작법인(JV)을 비롯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유지된다는 긍정적 판단에서 비롯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터리 업계는 당장의 업황 부진에도 향후 미국 시장이 글로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은 북미 전기차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를 기록하며 25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기지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몰려 있는 만큼 각각 628GWh(기가와트시), 305GWh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한국 기업들이 58%를 차지할 관측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응급실은?

전국 응급실 곳곳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일부터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광판에 응급실 병실 가동률이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혜택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새역공제(AMPC)는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부품 등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미국 정부가 지급 하는 보조금이다. 배터리를 생산하면 1KWh당 셀 35달러, 모듈 45달러의 새역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체는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장을 노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AMPC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는 하반기 실적 개선의 핵심으로 북미시장을 꼽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를 투자하며 초기 연산 27GWh 규모 공장을 설립한다. 공장 착공 시점은 이르면 올해 4분기로 알려졌다.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들어선

합작법인은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해 GM 전기차에 탑재한다. 또한 삼성 SDI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고 각형 배터리 채용 고객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릴 전망이다. SK온은 현대자동차와 조지아주에 2025년 양산을 목표로 35GWh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장병사기 진작 기대”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곧바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며 지정을 요청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자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주소·신용카드 번호 버젓이... 호텔, 잇단 개인정보 유출

투숙객 정보 최대 1818건 유출 한화호텔에 과징금 1.8억 부과

호텔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투숙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고객 정보 관리 책임자들의 주체적인 윤리의식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대 1818건의 투숙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절차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과실이 있었다. 또 시스템 사전 검증도 소홀히 한 탓에 1800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호텔의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이전부터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다. 지난 6월 호텔스컴바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

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 정보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취약한 시스템의 구멍으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1246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지난해 1월, 신라호텔은 한 달 새 두 번이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내부 직원이 뉴스레터를 발송하던 중 회원 정보를 잘못 입력해 총 9만 9344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안내 메일을 보내는 중 수신자 매일 168명의 메일을 그대로 노출하고 난 뒤 불과 열흘만의 일

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해외 호텔에서도 일어난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체인 호텔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역시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5억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개인 정보 중 개인의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3억 2700만명의 여권 정보가 포함돼 더 논란이 일었다. 2018년에는 일본 호텔 체인인 프린스 호텔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고객 정보 12만 5000건이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 6만 6000여건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됐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 10년만의 ‘시진핑 방한’ 이뤄질까... 中은 “적절한 분위기” 전제
▲ 안철수 “의료진 쓰러지기 직전... 정부 인사들, 구급차 타보길” /사진 뉴시스

▲ 여야, ‘계엄령’ 연일 공방... “망상” VS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냐”
▲ 윤건영 “문-다혜씨 경제공동체? 윤과 장모가 진짜 경제공동체” 반박



▲ 이주호, 일부 교과서 ‘우편향’ 논란에 “정체성 동시 다양성도 중요” /사진 뉴시스
▲ 국회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10일 실시